

## 학습장애, 과학적인 독서교육으로 치유한다

정확한 진단으로 문제 진원지 공략해...  
우리말 구조 인지와 어휘력 훈련이 관건

학습장애를 전문 치료하는 클리닉이 국내 몇 개 병원에서 본격 개설되고 있다. 학습장애란 아이큐는 정상이나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로 그 원인은 정보편식과 환경불안으로 인한 뇌의 불균형적 발달 때문이다. 이 가운데 '읽기' 장애를 겪는 아이들은 구조화된 언어·독서 프로그램으로 치료받고 있다. 과학적 진단으로 문제의 시발점을 정확히 발견하고 취약부분을 향상시키는 치료를 석달 정도 받으면 대부분 정상적 언어능력을 회복한다.

학습장애 클리닉이 아이들의 표현력 부족과 왜곡된 언어사용을 근본부터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습장애 클리닉은 최첨단 설비와 전문의료진이 학습장애아들을 조기 진단해 문제의 진원지를 찾은 다음, 증상별·연령별로 세분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교정하는 것이다. 특히 책을 잘 못 읽어 책 읽기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의 경우, 약물이나 정신과적 시술에 의존하지 않고, "정확하게 읽고 그 느낌을 제대로 짚지 못하면 표현하는 훈련"만으로 완치가 가능해, 사설 교육기관과 학부모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 학습장애 아동 의외로 많아

서울대 어린이 병원은 학습장애를 치료받으려는 청소년들로 붐빈다. 학습장애 아동들이 의외로 많다는 증거다. 여기서는 학습장애 아동에게 적합한 학습법을 제시하거나, 약물 및 정신 치료를 통해 감각-지각 이상을 교정하고 있다. 이 밖에 수도권에서 학습장애 클리닉이 운영되는 곳은 삼성서울병원, 이대동대문병원, 상계백병원, 해수소아정신과의원 등 네 곳이 더 있으며, 이 가운데 독서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곳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두 곳이다.

학습장애란 정보를 저장·처리하는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겨 읽기, 쓰기, 말하기, 계산하기 등 학습과정 전반에 크고 작은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또 이것은 감각 장애, 정신 지체, 정

서적 질병과는 구별되며 주로 뇌의 해석 능력, 부위 간 연결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다. 쉽게 말하자면, 곱하기는 잘하면서 더하기·빼기를 못한다든지, 글을 잘 읽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다.

최근 교육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학습능력이 최저수준에 미치지 못한 아이들이 전체 비율의 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학계의 추산에 따르면, 중학생의 20% 정도가 어떤 식으로든 학습에 문제가 있고 4~9%가 학습장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습 부진을 '의학적 증후' 차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일단 반가운 일이다. 아동문제에 대한 무관심이나 비과학적인 관행을 고쳐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김향희 박사(언어병리학)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읽기 장애에서는 문서로 씌어진 단어를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말의 논리적 순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조화된 언어 프로그램을 따라 처음에는 글자를 음소단위로 분해해서 설명하고 조합하는 치료에서 단계적으로 심화시켜 글의 전체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우리말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인지 중요해

읽기 장애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단어를 빼먹고 읽거나, 음소와 소리를 연결시키지 못하거

나, 문장 구성요소의 호응관계를 헛갈리는 식으로 나타난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어휘력 부족으로 어휘의 습득 방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단어수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다. 전자의 경우 다의어와, '~할 것 같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동사활용에 약하다. 처음 눈에 익힐 때 뜻을 정확히 짚지 않고 그냥 넘긴 것이 화근이다.

"우리말은 소리내서 읽기에 좋은 언어다. 대부분 아이들이 소리내서 읽는 것은 잘 하는 편이다. 대신 우리말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무척 까다로운 언어다. 문장 규칙이 험거워 한 동사가 문장의 다른 어떤 품사와도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고 또 생략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척 어려워한다."

서울대 소아정신과에서 학습장애아를 치료하는 신성웅 담당의의 말이다. 그는 우리말 문장교육은 처음 '길'을 잘못 들면 점점 미로를 헤매고 평생 잘못된 언어습관을 반복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읽기' 장애아들은 서울대 소아신경과가 특별히 개발한 독후감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으로 치료받는다. 신담당의는 "긴 문장 단락나누기, 단락마다 중심문장 고르기, 입자말(주어)과 꾸밈말(서술어) 찾아 연결하기 등 기초적인 문장교육을 한다. 그 다음 단계는 동화나 우화같이 비교적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한 이야기책을 선택해 읽히고, 내용을 요약하는 독후감을 써내게 한다"며 구조화된 독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데도 순서가 있다. 우선 큰 제목에서 작은 제목, 본문 순으로 읽어 나가게 한다. 글을 쓰는 순서와 읽는 순서가 일치해야 하는데, 그것이 논리적인 사고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독후감을 쓸 때도 마찬가지다. 단락별로 각각 요약한 다음 이것을 접속사로 연결시키게 한다. 접속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문단 사이에도 꼭 '그리고'를 넣게 한다. 이런 기초적인 부분이 익숙해지면 글의 시공간적 배경, 신문 사설 같은 경우 소재와 주제를 적게 한다.

이런 치료를 석달 정도 받으면 대부분 아이들이 보통 수준의 언어·읽기 능력을 회복한다. 특별히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이 겹친 경우가 아니라면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환자는 치료비 부담, 병원은 일손 부족**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이런 치료를 받을 수는 없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습증진클리닉'은 중상위층 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찾는다. 일대일 개인면담이 많고, 병원 측의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병원비가 비싼 탓이다. 하지만 학습장애는 형편이 어려운 계층의 아이들일수록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정유숙 교수의 설명은 학습장애에 미치는 외부 교육환경의 영향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학습장애는 두뇌의 불균형적인 발달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가정교육 소홀, 곁돌고 있는 공교육 등 환경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요인에도 많이 영향받는다. 적당한 시기에 제대로 된 독서경험만 쌓을 수 있다면 아이 스스로 얼마든지 극복해 낼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할 여건이 안돼 병이 되곤 한다."

병원에 오는 아이들은 그 전 단계로 사설 독서교육단체나 학원을 거치게 마련이다. 치료비 부담도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 멀쩡해 보이는 아이를 병자 취급하기 싫은 까닭이다. 하지만 사설 학원에는 학습장애아를 위한 특별한 교육과정이 없다. 현재 전국 200여개 독서교육 센터를 운영하며 2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한우리 독서문화운동본부에서는 6개월 교육과정을 이수한 독서지도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 교육과정에는 독서교육론, 독서자료론, 독서논술지

도론, 독서지도 방법론 등은 있지만 '독서치료'는 따로 없다.

중앙독서교육의 경우 회원이 5천여명인 대형 학원이다. '중앙'은 일대일 토론식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특징인데, 이를테면 맞춤식 개인교육인 셈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조은경 연구원은 "글을 싫어해서

안 읽는 것과 못 읽는 경우는 그 차이가 크다. 후자의 경우, 아이들을 돌려보내거나 병원을 추천해줄 수밖에 없다"며 난감함을 토로했다.

**병원과 학교의 역할분담 필요해**

학습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됐다. '504플랜'에 의해 공교육 안에 제도화해서 운영되는 것이다.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학습장애 여부를 검사받고 적합한 클래스에 배정되고 분리교육을 받는다.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미국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태도에는 다 이유가 있다.

현대 의학은 인간 뇌에서 언어활동을 관장하는 영역이 10세를 한계점으로 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볼 때 9~10세 아동의 뇌가소성(腦可塑性)이 가장 높은 것이다. 이 기간에 이뤄지는 교육은 언어영역에 입력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10세를 넘어서면 언어정보가 뇌의 엉뚱한 영역에 저장돼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만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최소한 열 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매일 책을 읽어줄 경우 유아들의 뇌신경 조직이 빠르게 성장한다"는 미국소아과 학회의 발표문에서도 간접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야 뒤늦게 정신의학이라는 경로를 통해 교육치료의 개념과 방법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병원 신담당의는



학습증진클리닉이 주목받는 이유는 '난독증' 같은 언어발달장애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교정하는 획기적인 원인치료에 있다. 이 치료는 비단 병원뿐 아니라 교육현장으로도 연장돼 시행할 수 있어, 교육계와 의학계의 상호협조를 통한 과학적 독서법의 실현을 예감케 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대 소아정신과 학습증진클리닉의 치료장면.

학교와 병원의 상호협조가 있어야 학습장애를 예방할 수 있으며, 그래야 성인이 돼서도 정상적인 공부와 책읽기에 곤란을 느끼는 경우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현재 학습치료가 초기 단계라 교육기관의 역할과 몫을 병원이 떠맡은 형국이라며, 교육계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며 다음처럼 말했다.

"전문적인 기기를 동원해서 검사하고, 진단하고, 정신을 포함한 신체적인 문제증후를 찾아내고 방법을 처방하는 것은 아직 의학의 몫이다. 하지만 진단 이후 교육하고 치료과정을 체크하고 사례를 비교하며 기록하는 일은 일반 교육기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 개설된 학습증진클리닉은 미국식 교육 프로그램을 모델로 삼고 있다. 미국 학계의 교육치료 이론이 가장 활발하고 정교한 것도 이유지만, 아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측면에서 단연 본받을 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알타이어 계통인 우리말과 인도·유럽어권인 영어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할 것을 주문한다. 우리말 문법체계의 정확한 전달은 어순이 비슷한 일본 등의 아시아권 나라들과 함께 연구하고 토론을 벌이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 강성민 기자